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가운데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지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일체만법 마음의 근본이 운영합니다

남편 폭력이 심합니다

문 귀의 삼보 하옵고, 한 마음 두루하여 모자람 없는 대자비심으로 유·무형의 생명들을 고통으로부터 구해주시는 대행스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40세의 가정주부로서 남편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스님! 자비하심으로 올바른 가르침 간구 하옵니다. 제 남편은 인륜도 도덕도 없는 인간성이 비뚤어진 사람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성질을 무섭게 내며 상대를 비난하고 10여년이 넘게 저에게 폭언과 구타를 일삼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 여자라는 등 배운 학식이 적다고 무시한다는 등, 심지어 도구를 사용한 폭력으로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자 문제로 저를 여러 번 실망시켰으며, 요즈음에는 저와 아이들도 구타하여 집밖으로 쫓아내며 심지어 최악의 경우 주위의 사람 모두를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는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집안에서 같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무섭고 불안하여 아이들이나 저는 길은 병에 들 것 같습니다. 스님 이 감감한 칠축의 어둠에서 저와 아이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답 어느 사람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아무거나 썰개치고 마누라를 죽일 듯이 때려 아주 크게 습관이 돼서 술만 마셨다 하면 자기 세상이란 말입니다. 또 그뿐인가요, 농사를 짓는 걸 보면서 소하고 마음이 항상 그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더러 하는 소리가 나나 나나 얼마나 죄가 많기에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맞아만 할꼬! 이렇게 물어야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살지 않을 수도 없고 어떡하면 좋으냐? 하면서, 소죽을 썰어주면서 같이 운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잠재해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내는 죽어서 저절로 남편이

되고, 그 남편은 저절로 여자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소는 그 집의 아들이 되고요. 그러나 횡포를 부리던 남자는 이생에서 아내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하고는 잘 맞는데 어머니하고는 도대체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전자에 자기가 그렇게 한 거를 생각

소리가 당신은 예전에 지금 당신 남편이 부인이었을 때 몇 골짜기 더 때렸고, 저 지금 아들인 소를 몇 골짜기 더 때렸어. 그렇게 때렸고 못살게 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오늘날에 당신이 이렇게 맞는 거고, 이렇게 속상하고 불이 일어나서 살 수가 없고 그렇지만 구박을 받는 것은

모두 자기 참 주인공에 맡겨놓고
믿고 물러서지 않고 관한다면
참 생명수의 근원이 나에게...

이나 하겠습니까? 이젠 자연의 법칙이면서 자기의 생각, 잠재의식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아파서 울었기 때문에 자기의 잠재의식에 그것이 없애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그 도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알았다면은 그것조차 지워버릴 것을, 또다시 인연을 짓지 않을 것을,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맞아야 하고, 밥 세 끼니 얻어먹는 건 마찬가지지만 하루종일 일을 하고도 주정을 받아야 하고 맞아야 하고 애한테도 골짜기 못 하고 사는 이런 인생은 살아 뭣 하나!' 하고 양말을 해가고 자식은 자식대로 들어오면 '아버지, 오늘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하고선 둘이는 아주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데, 부인이 바깥에서 들어오면 그냥 이런 게 치밀고, 때 때라서는 그 남편이 들어와서 막 그냥 때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들어오면 괜히 갖다 주는 것도 부장을 하고 괜히 심통을 부리고 썰개치고 그냥 나가고, 그렇게 어머니를 못살게 굴 수가 없는 겁니다.

그했는데 하루는 하도 힘이 들어서 질에 갔어요. 이 부인이, 질에 가서 그런 사실 얘기를 스님께 꼭 하면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백번지 일도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하고 인연이 왜가지고 세 번을 다시 죽었다 또 태어나야 다 갖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젠 정말 너무했죠?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 소릴 듣고 '그

자기 생각과 행동 누가 하나 지켜보도록 모든 것을 놓고 쉬면 여여하게 돌아가요

러면 어떻게 해야 세 번의 인연을 또 맺지 않고 그 고생을 안 합니까?' 하면서 스님 말씀을 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려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마음 안에 자부처를 찾으면서 '모든 것은 내 탓이오니 그저 모든 것을 당신께서 알아서, 제가 열 번을 죽어도 할 말이 없으니 열 번을 죽는다 하더라도 감수하고 받겠습니다' 하고선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은 자부처, 지금 이만큼 달랐다 뿐이지 주인공에 다 맡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아들이 그러더라도 말하고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탓을 하지 말고 그대로, 한 번 때리던 더 때려달라는 식으로 그저 존경하고 섬겨라. 그러다 보면 세 번 죽어서 다시 인연이 돼서 그렇게 고통을 받을 것을 당대에 없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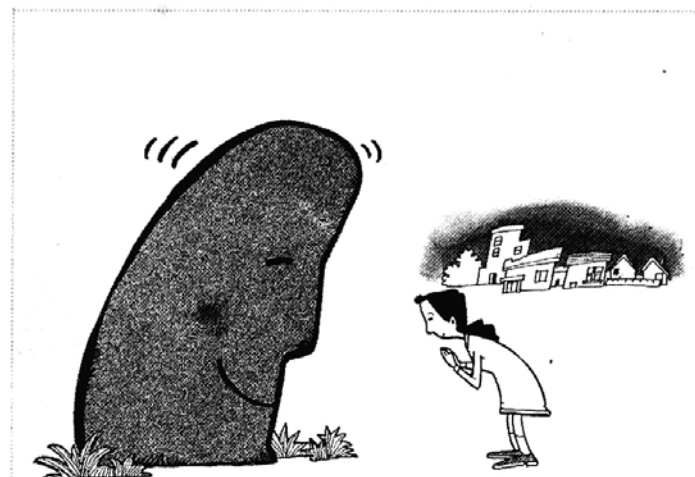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는 길입니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하세요. 보살님이 지극하게만 주인공을 돌 아키 찾으신다면 일체제불이 그 자리에 항상 함께하시는 거니까...

주인공 생각 횡수 세도 되나

문 ①저는 길을 걸을 때나, 운전할 때, 또는 술을 마시는 도중에 '주인공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물론 생각을 해도 그 자리이고, 안 해도 그 자리라는 것은 확실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지극하고 간절하다면 어찌보든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주인공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믿음을 점점 하는 한 방법으로 주인공에 대한 생각을 횡수로 나타내어 하루 하루 자발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지, 그대로인지, 적어지는지로 점검하는 것도 단지 숫자의 많고 적음에 그달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여쭙어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욱 지극해지고 횡수가 많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끊어지지 않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②살다보면 가령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길을 걸다가 남과 팔을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과 부딪힐 때는 사소하게 넘기는데 죽을 뻔했던 일은 오래 오래 기억합니다. 하나는 심각한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사소한 일로 사람들은 생각하나 저의 견해로는 두 상황은 모양만 달랐지 전혀 차이가 없는 똑같은 것으로, 단지 육신 많은 사람들의 분별심에서 하나는 심각한 상황이고, 하나는 사소한 상황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하는데 가르침 주십시오.

답 ①보배는 바로 여러분 마음 주인공에 있습니다. 이틀해서 그것도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배 주인공! 하면 주인공 안에 일체만법이 다 들어 있고 삼천대천세계의 우주의 섭리가 지도 주인공! 하면 그 속에 다 들어 있으니 그 무슨 묘법입니까?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불가사의한 그런 뜻이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하고 불렀을 때에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철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만 켜주시면 경내에(가정에) 온종일 부처님의 경전말씀이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인켈 inkel 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불경대전집CD는 인켈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일반 CD 30~40장 분량이 한장에 수록되므로 인켈 압축 CD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됩니다.

▶ 이 한 장에 56가지 경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총 27시간 07분)

1. 천수경(14분 05초)
2. 장엄염불(20분 24초)
3. 아미타경(13분 38초)
4. 화엄경 약찬계(16분 18초)
5. 반야심경(2분 49초)
6. 고왕경(5분 41초)
7. 목탁성(5분 19초)
8. 법성계(2분 49초)
9. 무상계(4분 51초)
10. 관음정진(10분 02초)
11. 금강경(33분 15초)
12. 반회심곡(13분 07초)
13. 천수경(18분 24초) ... 35. 우리말아미타경(27분 51초)
36. 우리말 반야심경(4분 00초) ... 55. 회심곡(9분 05초)
56. 탑돌이(8분 05초)까지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예)반야심경 5번 천수경 13번
① 번천수경부터 56 번 탑돌이까지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켈 압축CD플레이어 GOOD DESIGN 통상상업부성정

· 규격: W×D×H (26×18×65cm)
· 가격: 불경대전집 + 압축CD플레이어 = 280,000원 ※스피커는 별매입니다.

인켈에서 세계특허를 획득한 첨단오디오로 일반 CD와 FM방송도 들을 수 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56가지 경전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 경내나 가정에 있는 오디오에 연결하시면 더욱 웅장한 소리로 경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

CD 한장을 비워 두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스님들의 포교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의 높은 법력이 담긴 좋은 법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CD에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찰을 찾는 신도님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기간: 1999. 8. 16 ~ 8. 21 (기간안에 주운한 분에 한함)

구입 문의 080-900-0101 032-343-2267

■ 주문방법: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가능)
■ 배달방법: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 이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 입금계좌번호: 서울은행 51304-6100001 (예금주 이희숙)

■ 보급처: 법순 총법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30번지